

오늘 교제하실 내용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27절[]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 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 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 같이 되었더라

환영하는 소리로 알고 있겠습니다. 초등부 공과는 중고등부 공과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사교육에 있어서도 범위 자체가 주제가 오늘은 게하시의 탐심으로 제한 되 있어서 다소 목상하는데 저 또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열왕기하에 나온 엘리사의 크고 작은 이적들을 보면 약 20가지가 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맥상으로 파악 할 수 있는게 17가지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의 기적을 많은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을 예표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 중의 하나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낸다면 심지어는 죽은 엘리사의 뼈에 사람의 시체가 달았을때 그 영혼이 살아난 것 또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많은 영혼이 살아남을 얘기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문둥병이 나온 이 내용들도 우리 5장 앞 절에 나오죠 문둥병이 낳은 기적이거나 이적에 관한 것들은 세상가운데서 문둥병에서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비취집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8장 11절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예표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좀 더 공부하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앞장에는 엘리야가 나오거든요 엘리야의 삶 자체는 세례 요한을 표시 하는 게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석청과 메뚜기로 광야에서 세월을 보냈죠 엘리야도 그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 본다면 많은 개인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많은 부분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은 게하시의 탐심 그리고 엘리사의 저주에 관해서 함께 목상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목상을 해보겠습니다.

열하 5장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 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탐심에 있어서 게하시의 자세를 좀 볼까 합니다. 게하시의 자세를 보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했습니다. 사환이라는건 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엘리사 또한 엘리야의 사환으로 있었죠?

그래서 그에게 입맞추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는 위치는 자기 가 뭘 주장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사의 종 사환으로 있는 게하시는 스스로가 이르되 그랬죠 종이라는 위치는 주장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종은 자신의 위치를 떠남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이라는 것은 뭐든지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거든요 내가 모든지 할 수 있다. 교만이죠? 우리가 청소년들 자존감에 대해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내가' 나 중심적인 사고를 사는 게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교만은 곧 죄의 결과. 자기 중심적 사고를 사느냐 자기 존중감적 사고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언어유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중심적 삶 그것은 교만이며 죄의 결과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기 존중감적 사고 자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 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자기가 왜 존귀한 사람인가를 인지하게 되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하시는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이 장을 함께 접어두고 민수기 1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구약 222페이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일을 잘해서 자기 스스로 승진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장님의 눈에 발탁이 되어야만이 승진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다는 것은 굉장한 큰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교만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 있었죠? 일명 루시퍼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이 창조되면서 하나님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 지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

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는 4번 보이지만 3번임. 내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기에 있어서도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 '너는 잘 할 수 있어' '너는 존귀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면

최의 결과일수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왜? 그게 사탄마귀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론을 많이 받아 들여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시절에도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런 것 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노아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은 이유와 동일 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모세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그 이유가 심판의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왜 심판의 이유입니까? 제가 보기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이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 자체가 심판의 이유일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있어서 자존감을 키워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자체가 심판의 형벌일수 밖에 없다. 사탄 마귀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입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역대 재산가 탑10 안에 든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10위권 안에 든 사람은 꼭 탑10 이라고 하고 5위권 안에 든 사람은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고 3위권 안은 세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죠 그 사람은 10위권 안에 든 모양 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은 자주 자기가 한번 입었던 옷은 다시 입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문고리를 잡으면 손을 꼭 썼고. 병이죠? 병입니다. 제가 그런것만 보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입니다.

일명 강박증이라는 병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집에 가면 손바닥이 닳아질 정도로 수돗물에 씻는 분 계시죠? 그러고 한번 입은 옷은 절대 안입는 분 계시죠 반대로 반복해서 입는 분들도 계시죠 그 또한 병입니다. 근데 이것을 강박증이라고 함. 그 주 원인이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이라는 자체가 다른 병하고 다르게, 강박증이라는 것은 내가 남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사고에서 출발이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너는 다른 사람이랑 동일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데 방법은 쉬습습니다. 방안에 손에 흙을 엄청 묻혀서 손을 묶고 일주일만 집어 넣어 놓으면 깨끗이 완치가 됩니다. 쉽죠? 어이 없는 표정을 짓고들 계십니다 이게 강박증의 치료 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강박증의 원인 자체가 실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난 다른 사람과 달라야되. 라는 것을 계속 의식적으로 사고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리적인 현상.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많이 인지치료라는 행동적인 접근에 의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강박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체. 이것은 교만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의 대가는 너무

나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고 죄가 씻기 었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이 잘나서 씻겼습니까? 우리 가운데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교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토요교제를 참여하지 않아요. 왜 참여를 않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학교에 가도 비교가 되고 교회에도 비교가 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토요교제에 참여하는 애들이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그나마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앉아 있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근데 그게 바로 가정교육의 맹점 이라는 거예요.

학업이 우수한 아이들만 토요교제 참여하고 있다 관점이 신앙이 좋은 아이들만 토요교제를 참여하고 있다는 게 아니죠. 먼저 전제 조건이 학업이 우수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뀌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있어서 선생님의 지도하는 방법론적인 것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 된 것은 공부를 잘해서 구원 해준 것이 아니죠 제가 보니까 얼굴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같아요 이중에 다행이기도 하죠 능력으로 천국 갈 사람 한 분 계시네요 그래서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 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나 된 것은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나를 보게 되요 아이들 자체가 자존감이 떨어진 이유가 그것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가르쳐주셔야 합니다. 그게 교만이 아닌 겸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4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또한 이 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 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도 대 제사장 아론 까지도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스스로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된 것은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뭘 할 수 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교만의 시작일 수 받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스스로 복극 보좌위에 높이리라 라는 마음 보다는 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음을 가르치시는게 더 현명하고 합당한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하시가 가졌던 스스로라는 단어에서 잠시 묵상을 가져봤습니다.

열왕기하 5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16절 입니다.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5장 16절에 나와있는 것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재물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
옵니다 바로 우리가 두번째 목상 해보고자 하는 주제가 엘리사는 왜 물질에 욕심
이 없었을까? 그런데 게하시는 왜 물질에 욕심이 생겼을까 하는 두 사람의 관점
의 차이를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나아만이 권했을 때 엘리사가 거부하는
과정을 이 게하시의 아마 현장에서 목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켜봤을 꺼거
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 20절의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게하
시가 스스로 내가 그들에게 가서 재물을 취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과정을 가만보면 과연 탐심이 어디서부터 발원하는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신발이나 운동화를 메이커가 아닌 비 메
이커 일명 동대문 표를 신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 예~ 나머지는 매장에서 구입
하셨죠? 매장에 가기 전까지는 아마 그냥 뭐~ 싼거 중국으로 싼 것은 3개를 이
야기 합니다. 썰렁했습니다. 이얼싼 그러거든요 싼 거

동대문 표를 고수하는 분들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매장을 본 순간 역시 싼 것과
비싼 것은 차이가 있어,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스로 이르기를 ‘그
래 한번 사는 거 이왕이면 이정도 투자는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입니다. 게하시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하시가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나아만이 오면 게하시가 뭐를 요구 해야지 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아만이 내민 재물에 눈이 휘둥그레 졌을 것입니다. ‘오 이게 뭐야
이런 재물도 있었네, 이거 하나면 팔자 고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지막 결과인 문둥병까지 가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
니다. 그런데 탐심으로 말미암아 문둥병까지 오는 결과의 과정을 한번 목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상고해보죠

16절에 나와있는 것이 실제로 물건을 봤을 거고 그래서 건물생심이 생겼을 것입
니다. 그리고 20절에, 20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쫓아가서 취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탐심을 보고는 사람이 적극적인 계교가 생긴
겁니다. 쫓아가서 무엇을 하겠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
건을 보고 탐심이 생김을 인해서 사람자체가 적극적인 계교를 송김을 알 수 있죠
21절 자체가 달려가서 맞아 가로되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그것을 실천했죠 2절 저가 가로되 평안하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어~, 자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죠 쫓아가서 행하는 행동을
했는데 행함을 했다는 말 자체가 정직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거짓말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보내셨다고 그러고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이라
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구체적인 과정까지 이야기 했습니

다. 한 달란트와 옷 두벌을 달라고 그의 거짓말은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25절 엘리사가 물었을 때 네가 어디서 오느냐? 라고 얘기 했을 때 그는 내가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종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그에게 있어서 어쩌면 최후의 변론을 할 수 있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아나냐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재물을 숨겼느냐? 나 그런 적 없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후에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느 시치미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의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나아만을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속일 수 없음을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나오는 문둥병의 결과까지 탐심의 결과는 건물생심에서 시작 되서 거짓을 바라고 그 거짓의 결과는 구체성을 띄고 아주 적극적인 행동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의 결과에 비해서 너무나 크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탐심, 어디서 발원할까? 거짓말 자체 탐심 자체, 과정은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렇습니다. 경건치 않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일 순간에 처음부터 타락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걸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시행에 옮기는 사람은 드물어요 하지만 죄악이 들어오고 거짓된게 들어오면 점점더 사람이 변해가요

처음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과정을 보십쇼 제가 교회학교 횡수로 10년 전에 그때 이 자리에 보이시는 분이 한 두분 계십니다. 그때 함께 교제 했던 분들중에서는 지금 전도인이 되신분도 많아요 그런데 나머지 멤버는 어디 가있습니까? 다 없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교제를 등지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점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의 삶 또한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일 순간에 변화하는 사람이 있죠 급격한 변화는 급격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끝까지 붙어있나 보십시오 없어요

짧고 길게 아니고 가늘면서 길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구원받자마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죠? 약효가 얼마나 가는지 보십쇼 제가 보는 바로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교제 안에 있으면서 서서히 변화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은 끝까지 갑니다 에너지이저죠 백만 스물한개 백만 스물 두개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별 같아서 점점 나아가는 사람들 신명기 7장에서 뭐

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멸하는데 어떻게 벌한다고 되어있죠? 점점 쫓아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점진적인 변화와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할 것 한번에 해버리지~

음식먹는 것도 천천히 먹는 것이 아니죠 들고 털어낼죠 그러니까 자꾸 고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도 죄도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또한 점점더 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게 게하시의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하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엘리사와 게하시가 한 두해 생활을 했을까요? 처음 만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엘리사가 했던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 학교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한번쯤은 고민해 볼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플래시에서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두 자녀가 성장했는데 20년 뒤에 심리학자가 역학 조사를 했더니 하나는 알코올중독자가 되어있었고 하나는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알코올중독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은 동일 했습니다.

당신 같으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사업가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도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이해가 안옵니까? 저는 사람을 보면 꼭 상태를 측정합니다 직업병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당신같으면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당신 같으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어떠한 삶을 배우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받게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맞는거예요? 둘다 맞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문제는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보느냐? 와의 차이와 무엇을 느끼느냐의 차이예요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느끼느냐? 교훈함을 받느냐의 차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예요 배우는 삶은 답습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의 삶 교훈의 삶은 변화를 요구하게 되겠죠 게하시의 아직도 그것을 배우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서도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하시에 있어서 교훈하고 싶은 것은 배우는 자와 느끼는 자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 하심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수많은 기

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어찌 그것을 알지 못했는지요 게하시가 우리에게 있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게하시가 엘리사까지 속이려고 했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 엘리사를 속이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람들 앞에 하는 행위 그리고 거짓된 행위는 다만 그 사람을 속여서 당장의 이득을 취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 속여서 이득을 취해본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분명히 500원짜리를 주고 과자 사먹었는데 500원짜리를 다시 준거 있잖습니까?

뭐라고 느끼십니까? 나이스~오늘 한 건 했다. 기분 굉장히 좋죠 오늘 일이 좀 잘 풀리나 봅니다 합니다. 악을 보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 사람 자체를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과 진배 없다.

사도행전 5장 5절 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근데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혼이 떠났는데 그 앞 전이 문제입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서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11절

9.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

10.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하노라

어디에 붙어있습니까? 화장실에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화장실에 가보시면 다음주 말씀해서 붙어있는걸 제가 한 2주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아신바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아신바 되었는데 어찌하여 네가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된 이상 서로 숨길 수 없음을 우리는 온천하에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짓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한 그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 우리가 하는 무의식적인 말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로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5절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전도집회 때 보신분은 보실꺼고 전도집회를 자주 안 들어 보신 분은 이 구절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만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 분은 말로 한 것도 말로 한 것도 심판하겠다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말은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지방교회에서 있다가 오신분들도 계실꺼고 할 겁니다. 건축헌금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르러 맹세한 사실들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거든요 교회를 옮기면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심을 향해서 맹세한 사실입니다. 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한 약속에 있어서는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교로 유명한데 그 어머니가 이르기를

맹자가 하루는 옆집에서 되지를 잡는데 왜 잡습니까 물었을 때 그 어머니가 너에게 고기를 가져다 주려고 그러나보다 하고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아들은 그날 밤 왜 고기반찬이 안나오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고기를 사다가 고깃국을 끓여주었습니다. 거짓된 행위와 언어자체가 당장은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당장에 거짓된 것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으나 꽃은 피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놓고 행위롭고 변화되기를 요구하는 삶 자체가 다소 앞뒤가 안맞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하시의 탐심 자체는 그가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탐심 디모데 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10절

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부하려고 하는 탐심 게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단단

히 한뭉 잡아서 삶을 펴보아야지

어떤 지역교회 형제님이 그랬답니다. 책을 평소에 안 읽던 책을 읽기 시작해서 자매님이 봤더니 책 제목이 로또 1등하는 법 그래서 그 비결에 따라서 로또를 십만원어치를 사와서 끊었답니다. 그런데 3등에 당첨이 됐네요

이럴수가 되는구나 그 뒤로부터 매주 50만원 어치를 샀네요 그래서 2억을 날렸다고 합니다.

억은 쉽게나오르죠? 부하려는 마음 탐심 물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하려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하면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기사 보내죠~ 김기사 가서 아침말씀 듣고 와 그래서 나 한테 전달해줘 그러죠

부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된 이유 자체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들었을 때 이야기 하기를 내 삶에 있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비결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족해하는 삶 현재의 삶에 만족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미래 또한 없습니다.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더 나은 사람이 오더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탐심과 거짓된 것을 쫓아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악귀가 이야기 했습니다. 과객에게 이야기 하기를 그 어떤 과객을 거울 앞에 유리창 앞에 보여주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이번에는 그를 데리고 와서 거울 앞에 내보였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에 내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울과 유리는 똑같은 재질임에 동일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칠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보느냐 나를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거울은 수은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게 되어있죠 우리가 내면이 탐욕으로 칠해져 있는 사람 자체는 자기받게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수은, 찌끼를 제거하십시오 탐욕은 그러면 물러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하로 다시 넘어와서요 5장 26절

초등부 시계는 굉장히 빨리가네요 5장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묻고 싶습니다 왜 엘리사가 이처럼 이야기 했을까요? 지금이 네가 이럴 때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위기에 있었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수차례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써 네가 물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어떻습

니까 이러한 삶에서 이렇게 타락된 세상에서 물질 만능주의적 세상에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삶에서 만족하십니까? 그러한 삶이 맞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부동켜 안고 살아가려하는 게하시와 다를바 없는 진배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물욕을 바꿔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계시록 21장도 마찬가지이고 14장도 마찬가지이고 히브리서 4장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하시의 삶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을 한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을 이익에 재료로 사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제 자매를 판촉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교회로 대상을 물건을 판다면 형제자매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하지 마십쇼

게하시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익의 재료 이익들을 경건의 재료로 바꿨다고 안그렸습니다. 그는 꺼꾸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바꿔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려 하였습니다. 그 삶의 결과는 치명적이고 두번 다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또한 문동병이 자기만 걸리게 아니었죠 자기 후손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어떤 형태이든 간에 세상적인 것과 바꾸지 않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